



II

2018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

1. 살인

1) 범죄유형

- 2018년에는 총 849건의 살인범죄¹⁸가 발생하였다. 이중 일반 살인범죄가 719건으로 8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존속살해 71건(8.4%), 자살교사/방조 49건(5.8%), 영아살해 7건(0.8%), 촉탁살인 3건(0.4%)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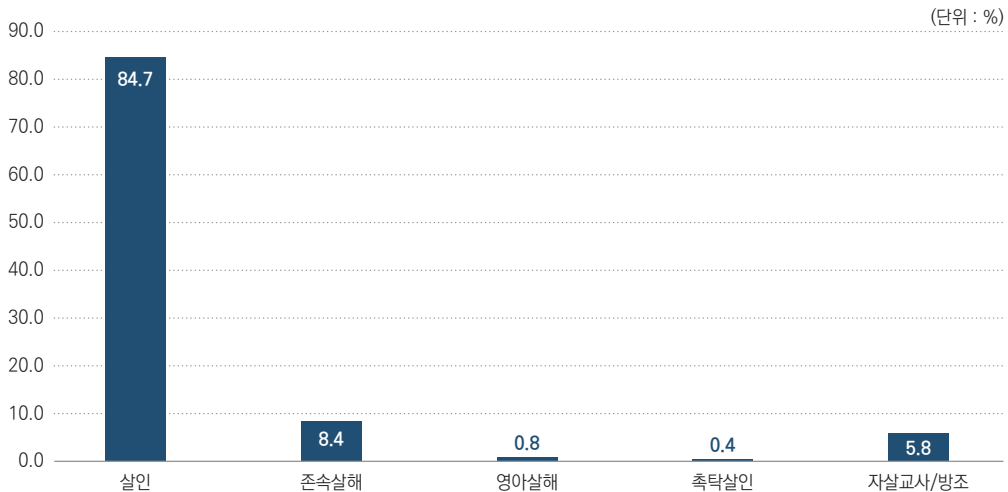


그림 24 주요 살인범죄 유형별 구성비

18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예비, 음모, 방조) 범죄가 모두 포함

2) 범죄발생시간

-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¹⁹는 밤(20:00~03:59, 41.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후(12:00~17:59, 22.0%), 오전(09:00~11:59, 12.9%)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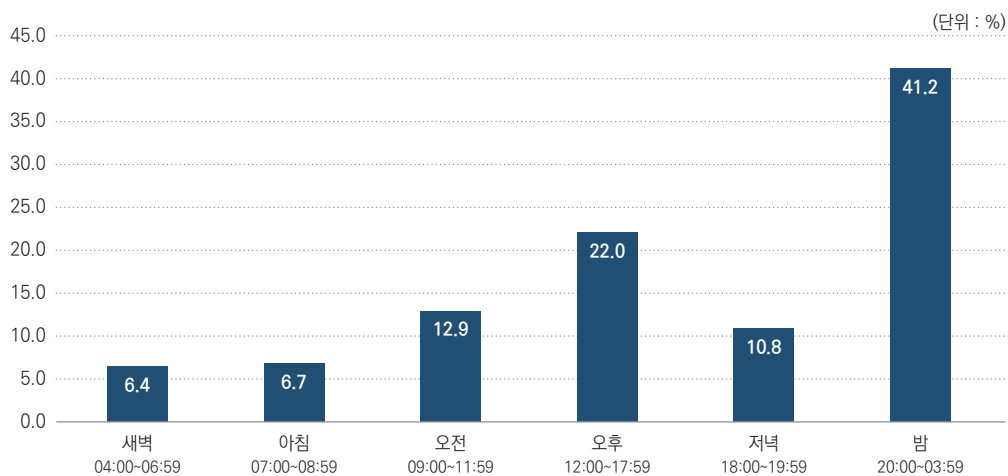


그림 25 살인범죄의 범죄발생시간

3) 피해자의 성(性)과 연령

- 살인범죄 피해자의 59.0%는 남자였으며, 41.0%는 여성이었다.
- 살인범죄 피해자의 67.5%가 41세 이상의 연령층이었다
- 남성피해자는 51세~60세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1세~50세 순이었다. 여성피해자는 61세 이상이 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1세~60세 순이었다. 15세 이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건수는 남성아동이 17건으로 여성아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피해비율은 여성아동이 4.4%로 남성아동에 비하여 0.7%p 높게 나타났다

19 발생시간별 비율은 발생시간이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 이하 작성되는 각 범죄별 항목별 표, 그래프에 표시된 비율은 별도로 언급된 경우 외에는 항목별 미상을 제외하고 작성된 통계임

표 24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건(%))

피해자 연령	피해자 성		계
	남성	여성	
6세 이하	15(3.3)	8(2.5)	23(3.0)
7세-12세	2(0.4)	4(1.3)	6(0.8)
13세-15세	0(0.0)	2(0.6)	2(0.3)
16세-20세	9(2.0)	12(3.8)	21(2.7)
21세-30세	44(9.7)	37(11.7)	81(10.5)
31세-40세	68(15.0)	49(15.6)	117(15.2)
41세-50세	96(21.1)	54(17.1)	150(19.5)
51세-60세	125(27.5)	71(22.5)	196(25.5)
61세 이상	95(20.9)	78(24.8)	173(22.5)
계	454(100.0)	315(100.0)	76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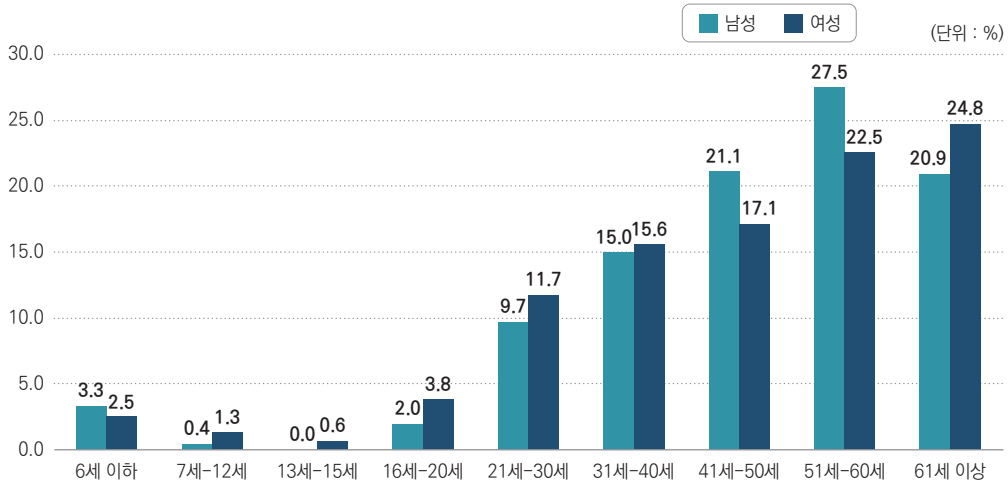


그림 26 살인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4) 신체피해정도

-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290건으로 전체의 36.4%였다. 살인범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36.4%의 비율을 보인 것은 살인범죄에 미수, 예비, 음모, 방조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살인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256건(32.1%),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251건(31.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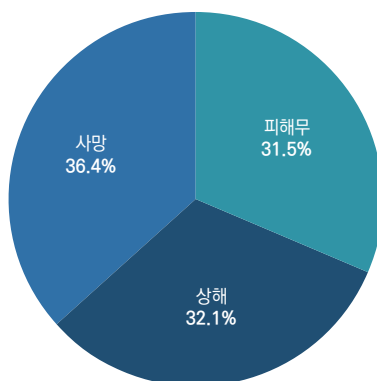


그림 27 살인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

5)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의 20.3%가 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 외의 관계에서는, 친족관계인 경우가 전체의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지인(16.8%), 애인(7.8%), 친구/직장동료(8.1%)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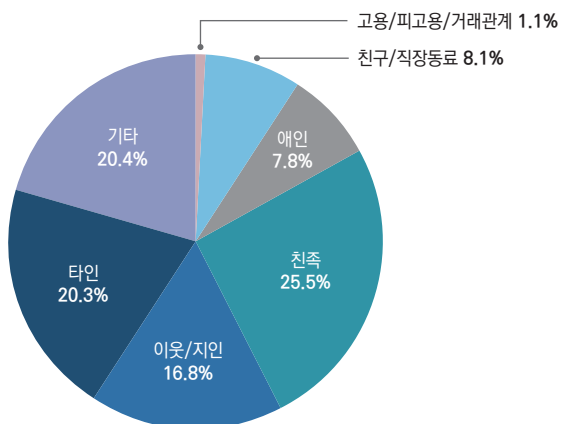


그림 28 살인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6) 범죄자의 성(性)과 연령

-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82.4%가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17.6%로 나타났다.
- 남성범죄자는 51세~60세 연령층이 2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1세~50세, 61세 이상, 31세~40세 순이었다.
- 여성범죄자는 41세~50세 연령층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9세~30세, 51~60세, 61세 이상 순이었다.
- 여성범죄자의 40세 이하 비율은 40.4%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범죄자(32.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5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범죄자 연령	범죄자 성		계
	남성	여성	
18세 이하	1(0.1)	8(5.1)	9(1.0)
19세~30세	105(14.4)	31(19.9)	136(15.3)
31세~40세	129(17.7)	24(15.4)	153(17.3)
41세~50세	176(24.1)	43(27.6)	219(24.7)
51세~60세	189(25.9)	25(16.0)	214(24.2)
61세 이상	130(17.8)	25(16.0)	155(17.5)
계	730(100.0)	156(100.0)	88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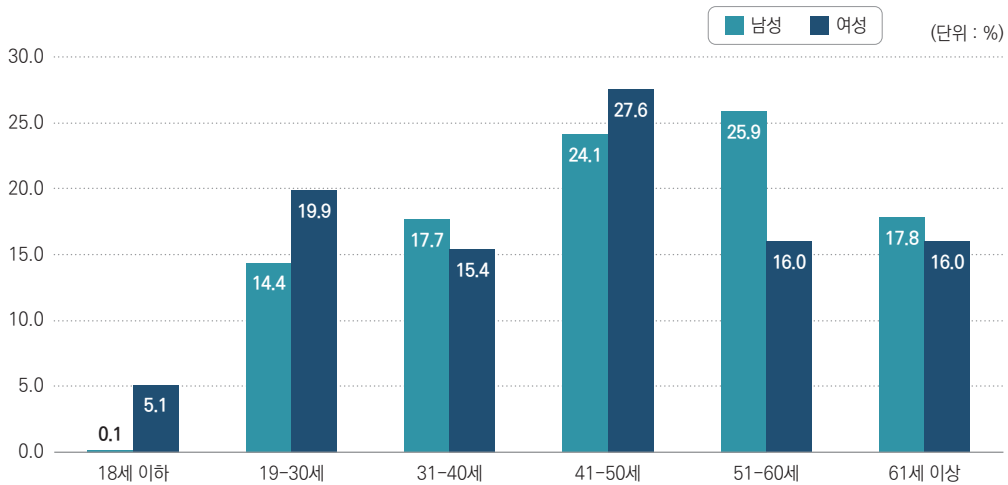


그림 29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7) 범죄자의 전과

-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43.3%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3.6%이며,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는 33.2%로 나타났다.

8)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 검거된 살인범죄 범죄자의 50.8%가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 41.1%는 주취상태였으며, 8.1%는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11.6%로 남성범죄자(7.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범죄자 중 주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43.6%로 여성범죄자(27.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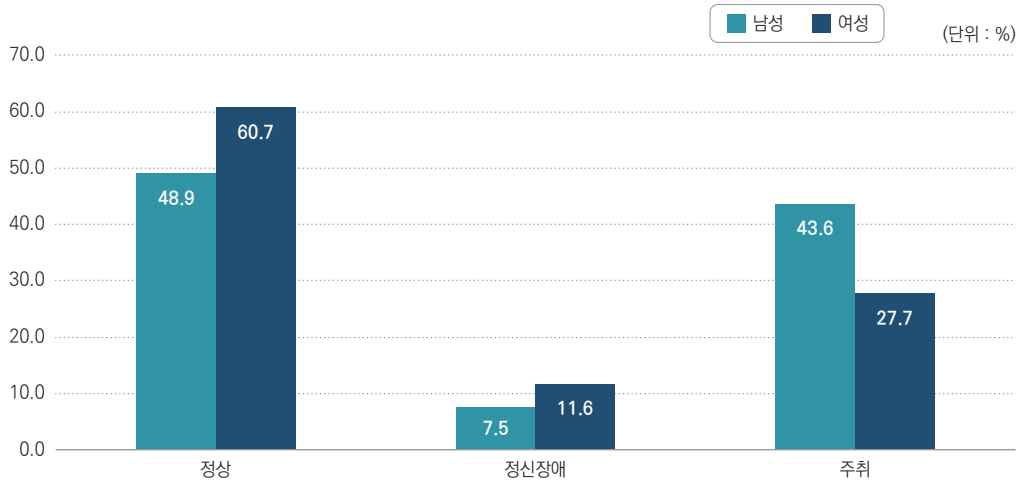


그림 30 살인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

2. 강도

1) 범죄발생시간

- 2018년 총 841건의 강도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43.3%가 밤(20:00~03:59)에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강도범죄의 51.2%가 저녁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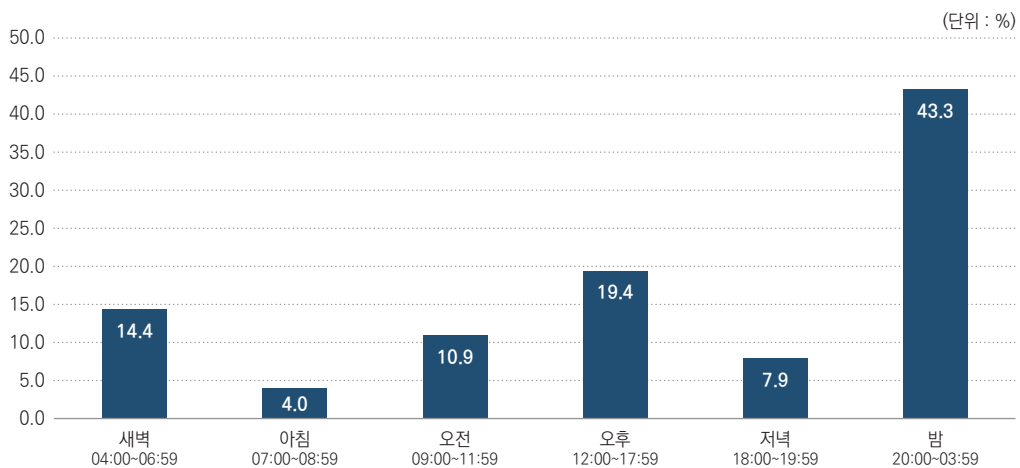


그림 31 강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

2) 범죄발생장소

- 강도범죄는 기타를 제외하면, 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 19.4%, 상점 16.4%, 숙박업소/목욕탕 9.5%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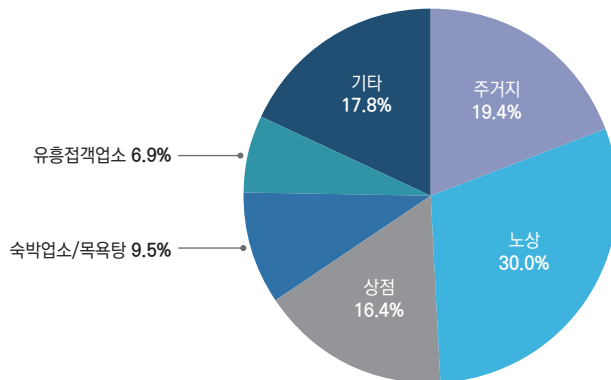


그림 32 강도범죄의 범죄발생장소

3) 범행수법

- 범행수법별로는 침입강도가 4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타 39.2%, 노상강도 11.9%의 순이었다. 마취강도는 3.3%, 차량이용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은 각각 0.7%, 0.7%, 0.4%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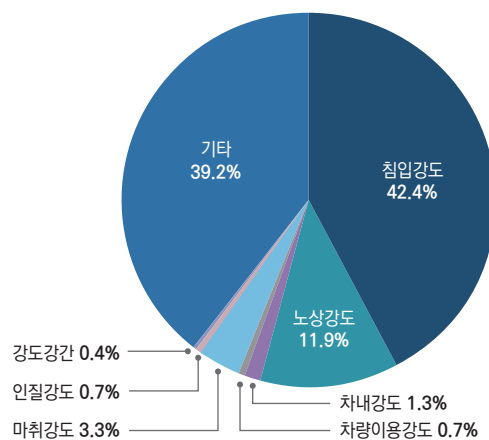


그림 33 강도범죄의 범행수법

4) 재산피해정도

- 강도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피해액수는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3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가 22.0%,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18.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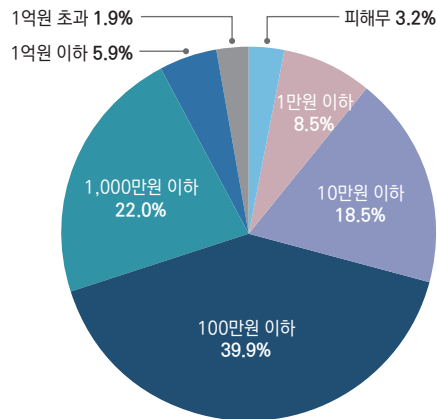


그림 34 강도범죄의 재산피해정도

5) 신체피해정도

- 강도범죄로 인한 신체피해정도는 피해가 없는 경우가 64.4%였고, 상해피해를 입은 경우가 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11건으로 1.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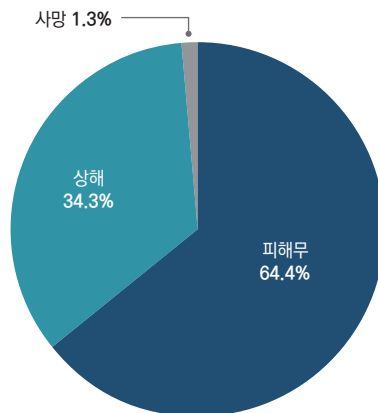


그림 35 강도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

6) 범죄자의 성(性)과 연령

- 검거된 강도범죄 범죄자의 88.7%가 남성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강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세~30세가 3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8세 이하 소년범죄자(18.5%)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남성범죄자는 19세~30세의 비율이 3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1세~50세(18.3%), 31세~40세(18.1%) 등으로 나타났다.
- 여성범죄자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37.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19세~30세(19.8%), 31세~40세(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18세 이하, 61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높았고,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 26 강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범죄자 연령	범죄자 성		계
	남성	여성	
18세 이하	166(16.1)	49(37.4)	215(18.5)
19세~30세	329(31.8)	26(19.8)	355(30.5)
31세~40세	187(18.1)	20(15.3)	207(17.8)
41세~50세	189(18.3)	14(10.7)	203(17.4)
51세~60세	123(11.9)	15(11.5)	138(11.9)
61세 이상	39(3.8)	7(5.3)	46(4.0)
계	1,033(100.0)	131(100.0)	1,16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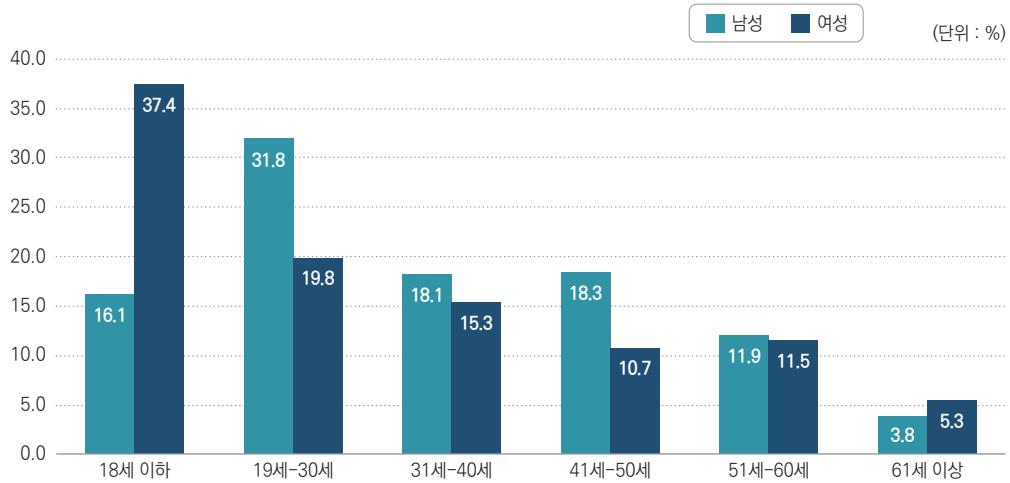


그림 36 강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7) 범행동기

- 강도범죄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우발적인 동기가 24.7%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마련(22.2%), 유혹/도박비마련(7.8%) 순이었다.
- 강도범죄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14.8%, 성인범죄자의 비율은 85.2%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 비율은 유혹/도박비마련, 우발적 동기가 성인범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7 강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

(단위 : 명(%))

범행동기	소년범 여부		계
	소년범	성인범	
생활비 마련	31(21.5)	186(22.4)	217(22.2)
유혹/도박비 마련	24(16.7)	52(6.3)	76(7.8)
우발적	37(25.7)	204(24.5)	241(24.7)
기타	52(36.1)	390(46.9)	442(45.3)
계	144(100.0)	832(100.0)	97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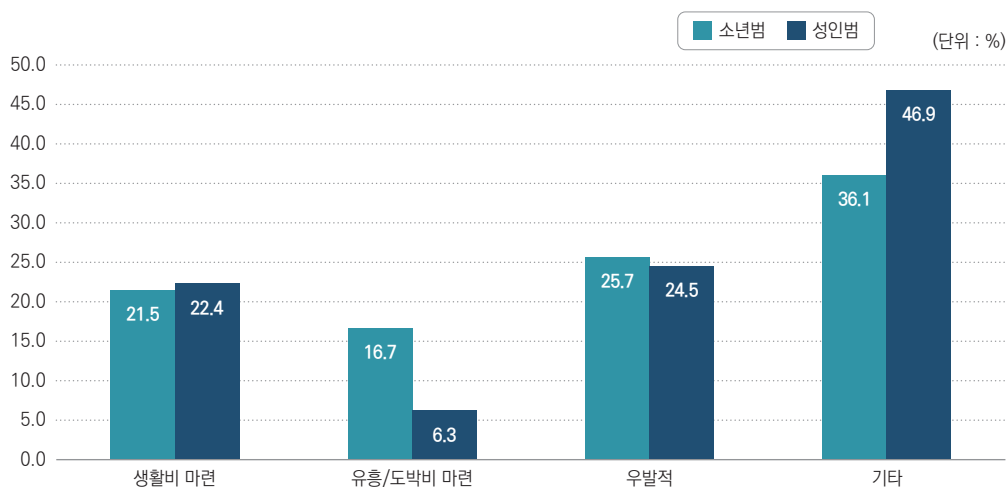


그림 37 강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

8) 공범 여부

- 강도범죄의 49.1%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범죄자의 39.6%가 공범이 있는 반면에, 소년범죄자는 87.0%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강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공범 여부별 분포

(단위 : 명(%))

공범 여부	소년범 여부		계
	소년범	성인범	
단독범	27(13.0)	502(60.4)	529(50.9)
공범	181(87.0)	329(39.6)	510(49.1)
계	208(100.0)	831(100.0)	1,03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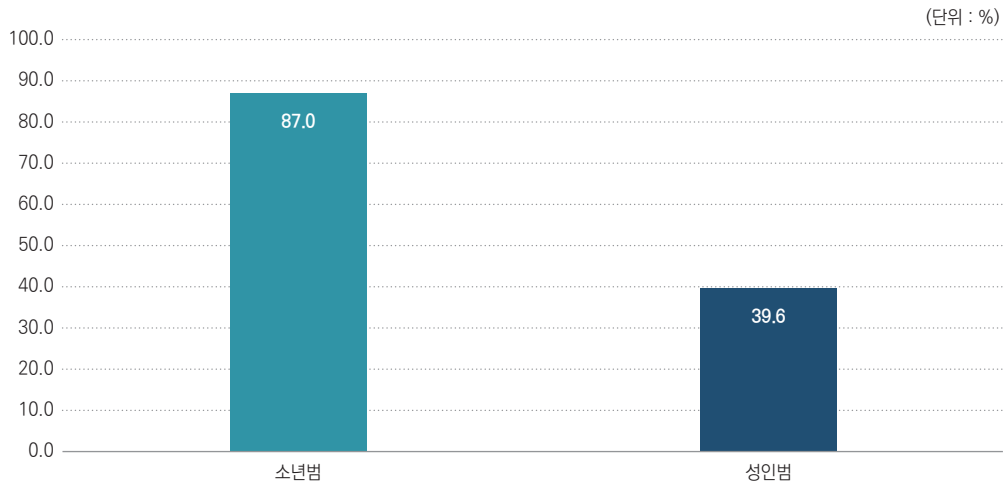


그림 38 강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공범비율

3. 성폭력

1) 범죄발생시간 및 계절

- 2018년 32,10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42.1%가 밤(20:00~03:59)에 발생하였고, 22.8%는 오후(12:00~17:59)에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52.0%가 저녁시간 이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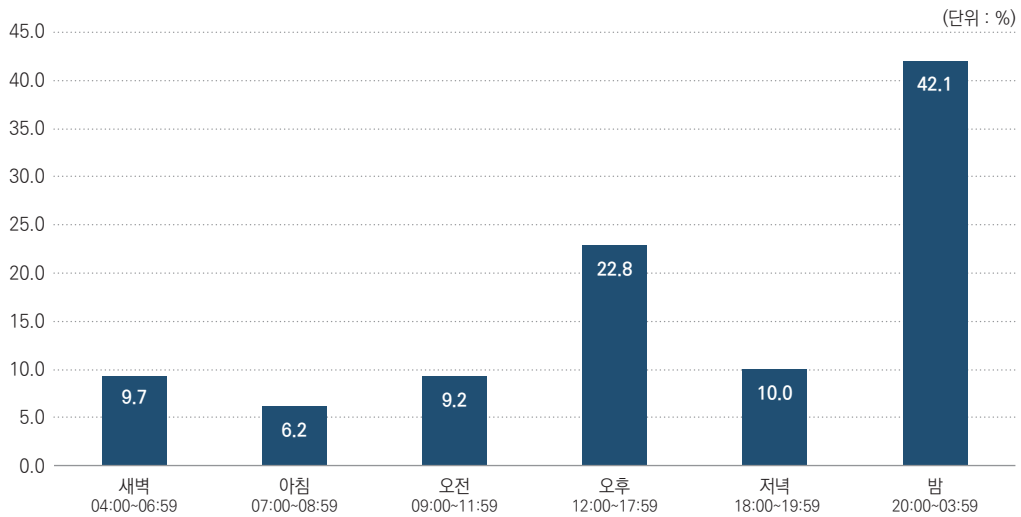


그림 39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시간

-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3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봄(26.9%), 가을(23.5%), 겨울(19.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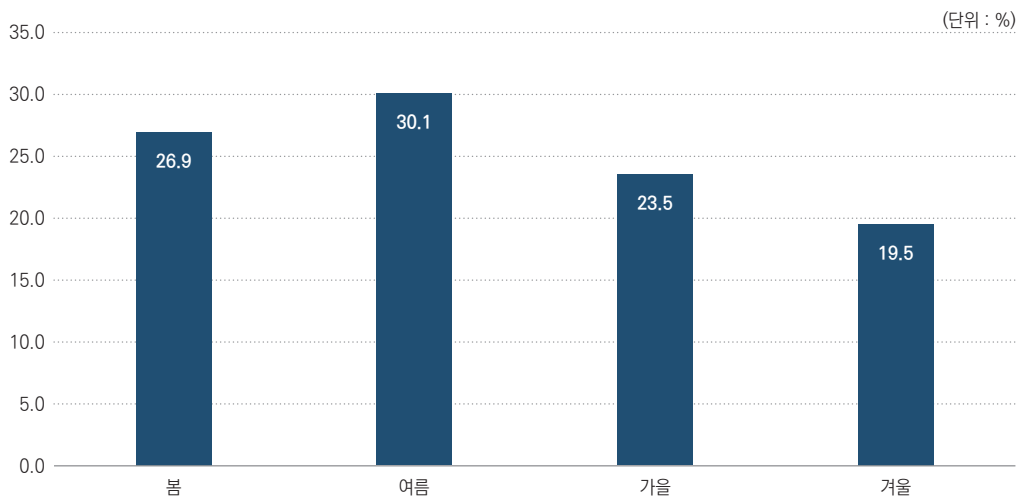


그림 40 성폭력범죄의 발생계절



2) 범죄발생장소

- 성폭력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 주거지(20.9%)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통수단(12.9%), 유흥접객업소(12.5%)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노상과 숙박업소/목욕탕이 각각 12.3%와 10.6%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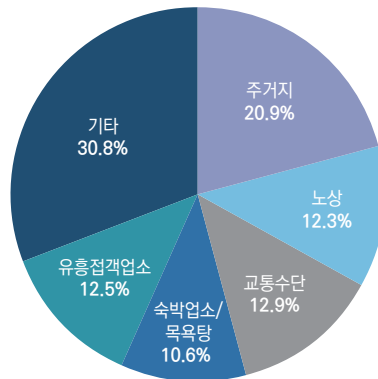


그림 41 성폭력범죄의 범죄발생장소

3) 피해자의 연령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21세~30세(39.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16세~20세(20.0%), 31세~40세(12.9%) 등의 순이었다.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9.2%가 15세 이하의 청소년이었고, 61세 이상의 연령층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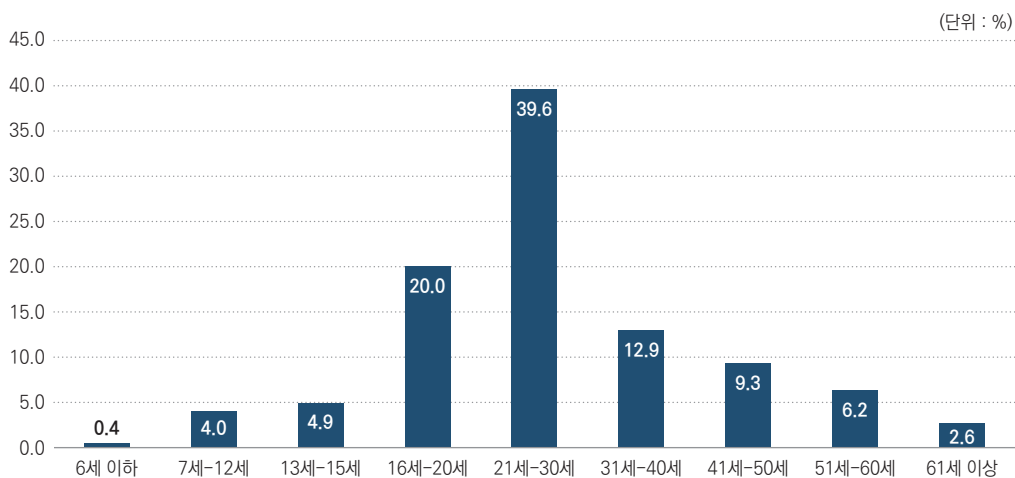


그림 4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4) 공범 여부

- 성폭력범죄의 94.3%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82.9%로 성인범죄자(95.7%)보다 낮고, 공범비율이 17.1%로 성인범죄자(4.3%)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9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공범 여부별 분포

(단위 : 명(%))

공범 여부	소년범 여부		계
	소년범	성인범	
단독범	2,350(82.9)	21,796(95.7)	24,146(94.3)
공범	486(17.1)	974(4.3)	1,460(5.7)
계	2,836(100.0)	22,770(100.0)	25,60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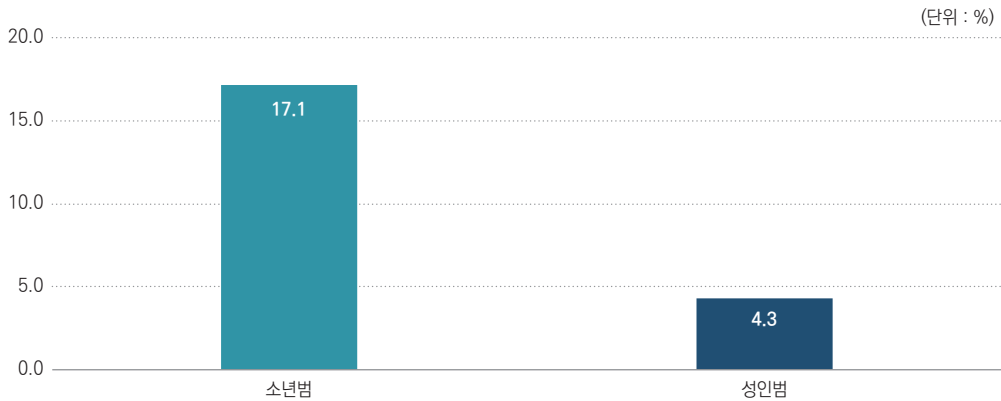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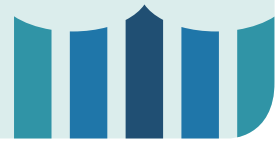


그림 43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공범비율

5)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 성폭력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타인이 6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비율이 54.0%로 성인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친구 등의 비율이 2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0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

(단위 : 명(%))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소년범 여부		계
	소년범	성인범	
고용관계	2(0.1)	530(2.3)	532(2.1)
친구 등	552(23.0)	1,465(6.3)	2,017(7.9)
애인	72(3.0)	1,014(4.4)	1,086(4.3)
친족	38(1.6)	823(3.6)	861(3.4)
이웃/지인	316(13.2)	3,275(14.2)	3,591(14.1)
타인	1,293(54.0)	14,614(63.2)	15,907(62.3)
기타	123(5.1)	1,419(6.1)	1,542(6.0)
계	2,396(100.0)	23,140(100.0)	25,53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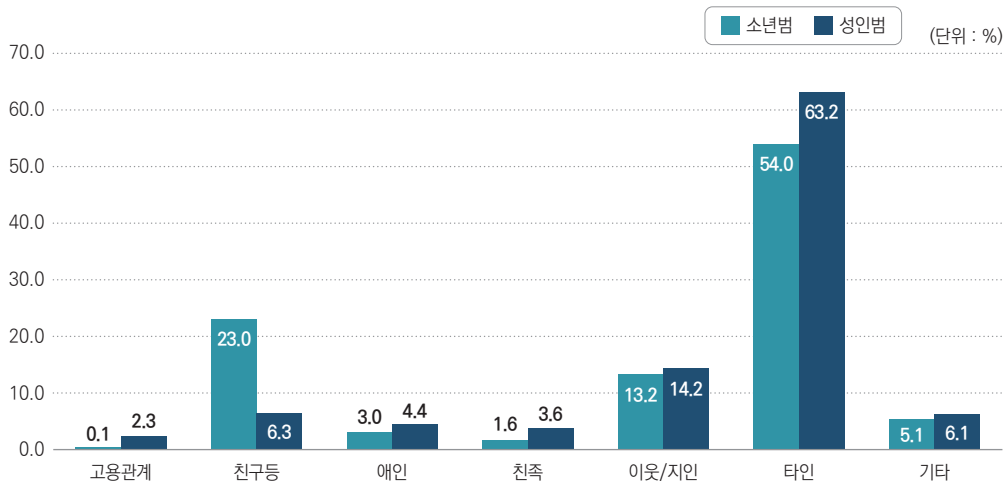


그림 44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

4. 방화

1) 범죄발생시간

- 2018년에는 총 1,478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중 41.4%가 밤(20:00~03:59)에 발생하였으며, 24.6%는 오후(12:00~17:59)에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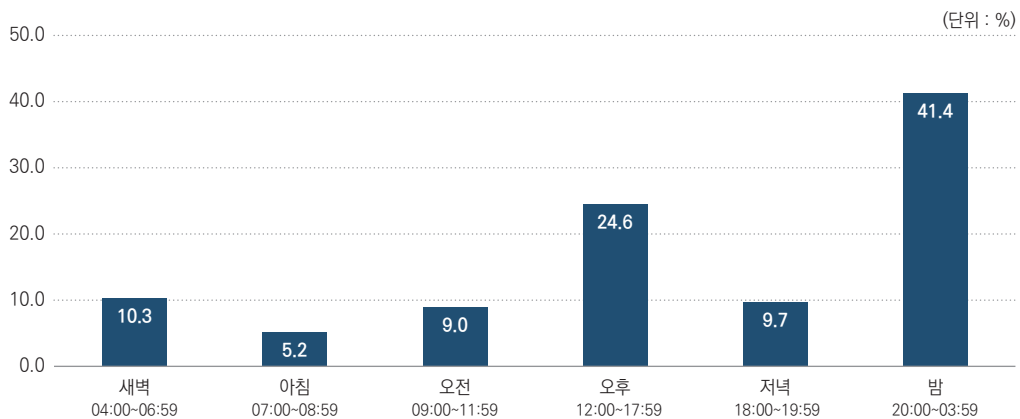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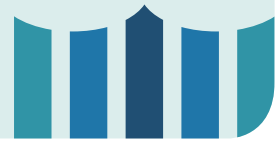


그림 45 방화범죄의 범죄발생시간



2) 범죄자의 성(性)과 연령

-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의 83.6%는 남성이었으며, 16.4%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 검거된 방화범죄 범죄자는 51세~60세가 3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1세~50세(24.0%), 31세~40세(12.8%), 61세 이상(12.2%) 등의 순이었다.
- 남성범죄자는 51세~60세의 비율이 3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1세~50세(23.2%), 61세 이상(12.6%) 등으로 나타났다.
- 여성범죄자는 41세~50세의 비율이 2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1세~60세(26.9%), 19세~30세(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범죄자 연령	범죄자 성		계
	남성	여성	
18세 이하	102(9.0)	8(3.6)	110(8.1)
19세~30세	126(11.1)	36(16.1)	162(11.9)
31세~40세	140(12.4)	33(14.8)	173(12.8)
41세~50세	263(23.2)	63(28.3)	326(24.0)
51세~60세	359(31.7)	60(26.9)	419(30.9)
61세 이상	143(12.6)	23(10.3)	166(12.2)
계	1,133(100.0)	223(100.0)	1,35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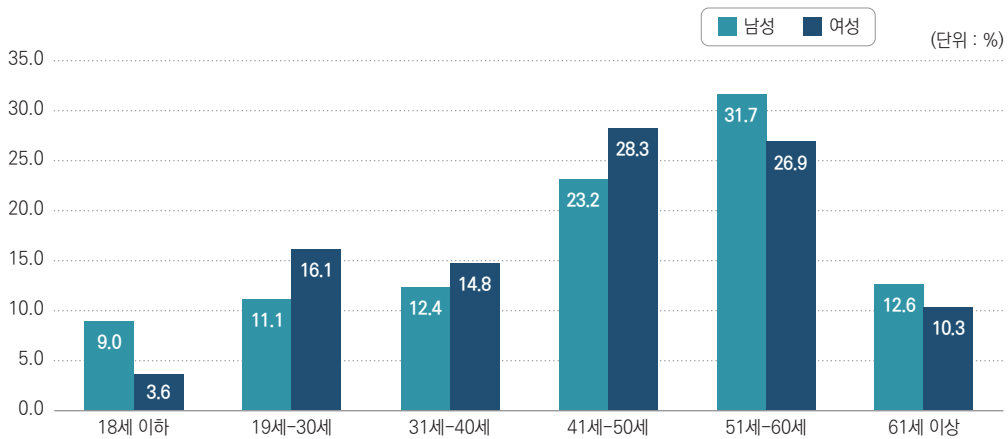


그림 46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3)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

- 방화범죄 범죄자의 41.5%는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47.6%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방화범죄 범죄자 중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10.8%였다. 여성범죄자는 남성범죄자에 비해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여성 20.7%, 남성 8.9%), 남성범죄자는 여성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남성 49.6%, 여성 37.4%).

표 32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

(단위 : 명(%))

범행시 정신상태	범죄자 성		계
	남성	여성	
정상	428(41.5)	83(41.9)	511(41.5)
정신장애	92(8.9)	41(20.7)	133(10.8)
주취	512(49.6)	74(37.4)	586(47.6)
계	1,032(100.0)	198(100.0)	1,23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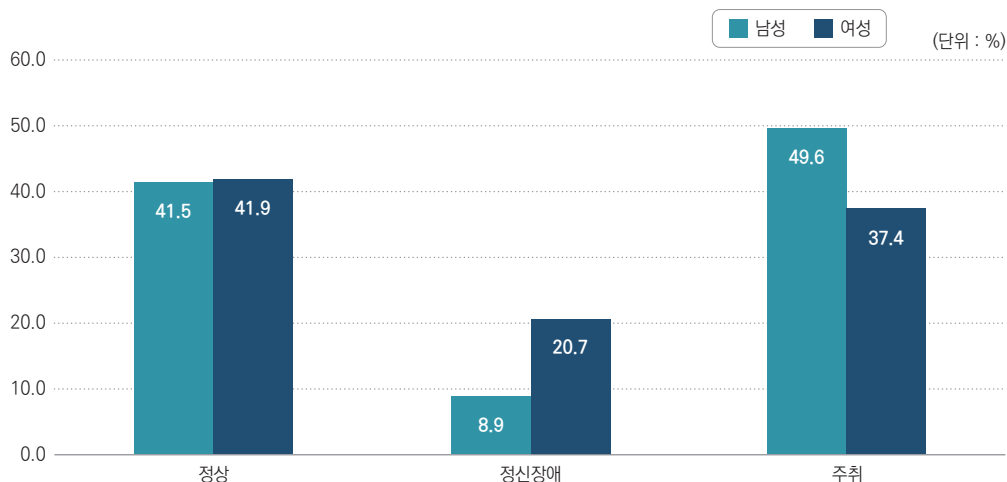


그림 47 방화범죄 범죄자의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



5. 폭행/상해

1) 범죄발생시간

- 2018년 총 208,166건의 폭행/상해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중 49.6%가 밤(20:00~03:59)에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대는 오후(12:00~17:59)로 19.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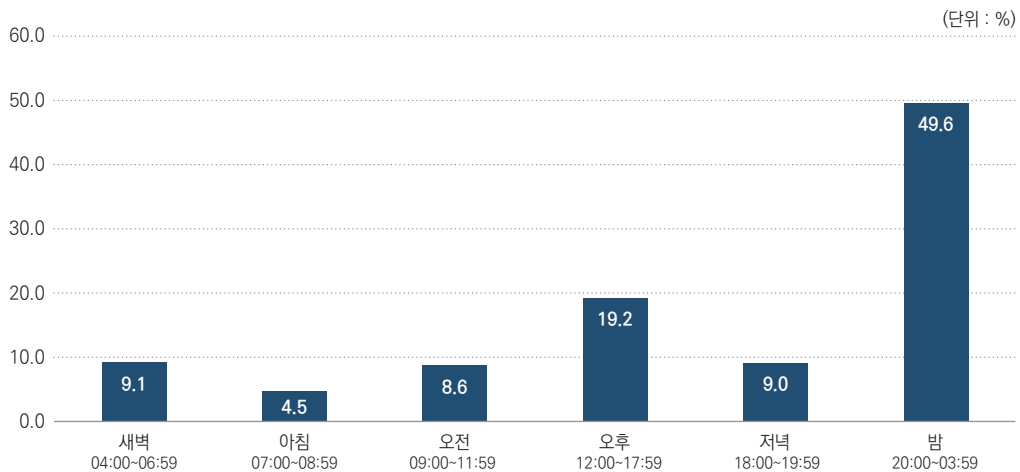


그림 48 폭행/상해범죄의 범죄발생시간

2) 범죄발생장소

- 폭행/상해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노상(38.0%)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지(22.0%), 유흥접객업소(14.8%)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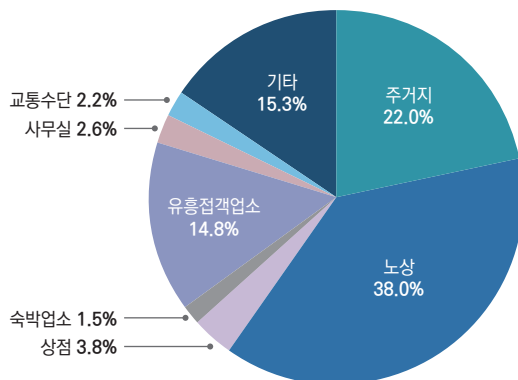


그림 49 폭행/상해범죄의 범죄발생장소

3) 피해자의 성(性)과 연령

- 폭행/상해범죄 피해자의 62.7%는 남성이고, 37.3%는 여성이다.
- 폭행/상해범죄의 피해자는 21세~30세(20.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1세~60세(19.7%), 41세~50세(19.3%) 등의 순이다.
- 여성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31세~40세와 41세~50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피해자의 경우 여성에 비해 16세~20세, 21세~30세의 젊은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폭행/상해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건(%))

피해자 연령	피해자 성		계
	남성	여성	
15세 이하	2,927(2.6)	1,412(2.1)	4,339(2.4)
16세-20세	11,531(10.2)	4,946(7.4)	16,477(9.2)
21세-30세	24,076(21.4)	12,475(18.7)	36,551(20.4)
31세-40세	17,542(15.6)	12,934(19.3)	30,476(17.0)
41세-50세	20,006(17.8)	14,656(21.9)	34,662(19.3)
51세-60세	22,542(20.0)	12,786(19.1)	35,328(19.7)
61세 이상	13,903(12.4)	7,669(11.5)	21,572(12.0)
계	112,527(100.0)	66,878(100.0)	179,40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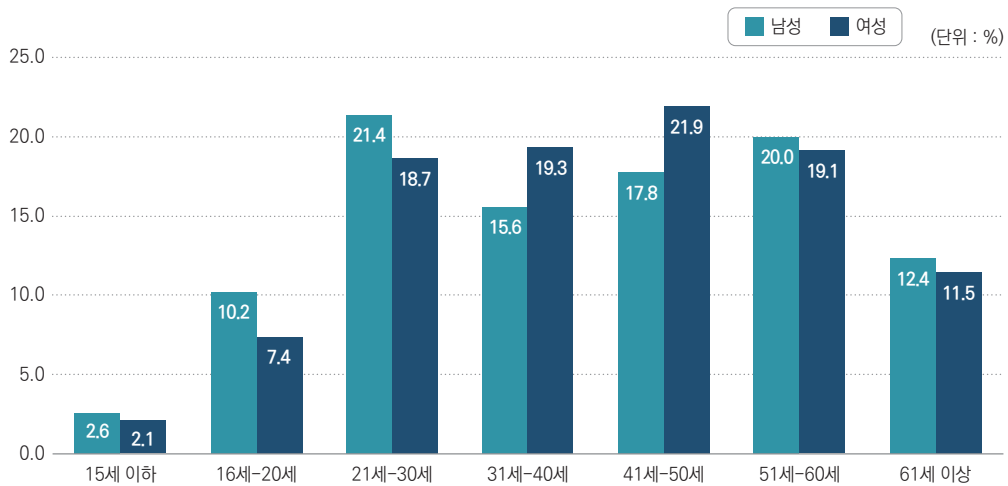


그림 50 폭행/상해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4) 신체피해정도

- 피해자의 77.7%는 폭행/상해범죄로 인해 어떠한 신체피해도 입지 않았다. 상해를 입은 경우는 22.2%이며, 사망한 경우는 0.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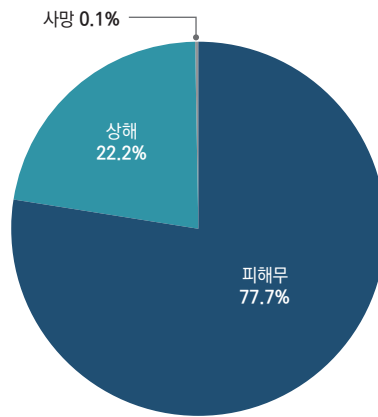


그림 51 폭행/상해범죄 피해자의 신체피해정도

5) 범죄자의 성(性)과 연령

- 폭행/상해범죄 범죄자의 82.5%는 남성이고, 17.5%는 여성이다.
- 폭행/상해범죄 범죄자의 주된 연령층은 41세~50세(22.4%)이고, 그 다음은 51세~60세(21.3%), 19세~30세(21.1%)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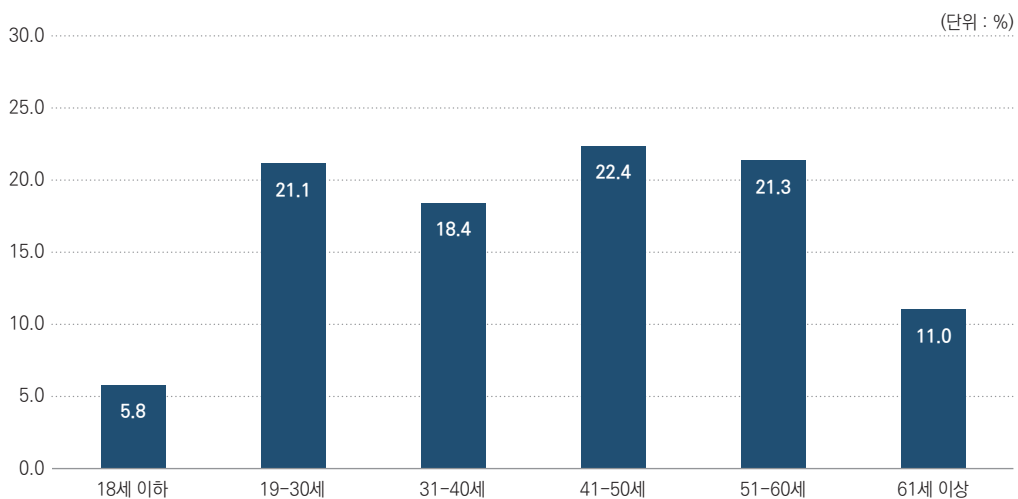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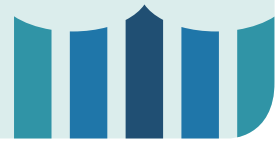


그림 52 폭행/상해범죄 범죄자의 연령



6)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 폭행/상해범죄의 54.1%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40.8%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지인(13.1%), 직장동료/친구(7.5%), 애인(3.7%)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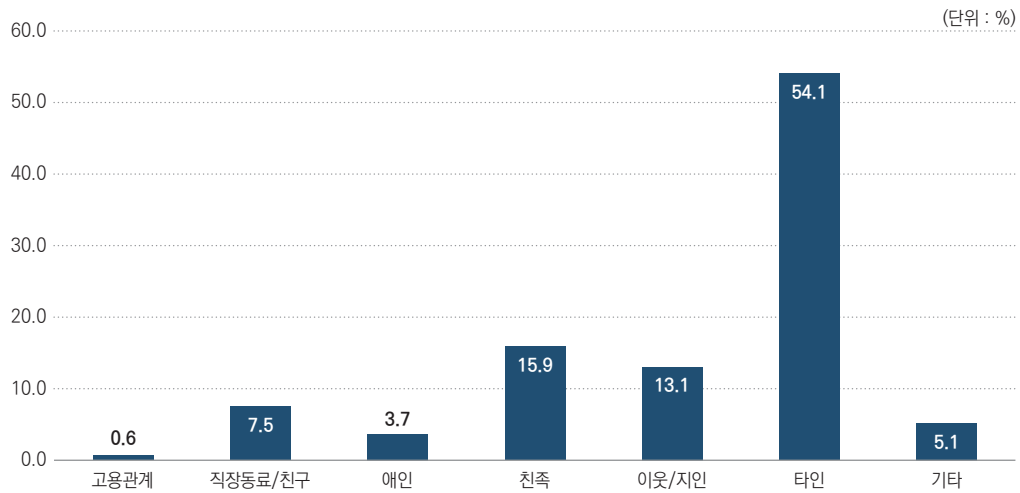


그림 53 폭행/상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6. 절도

1) 범죄발생시간

- 2018년 총 177,458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32.8%가 오후(12:00~17:59)에 발생하였고, 29.2%는 밤(20:00~03:59)에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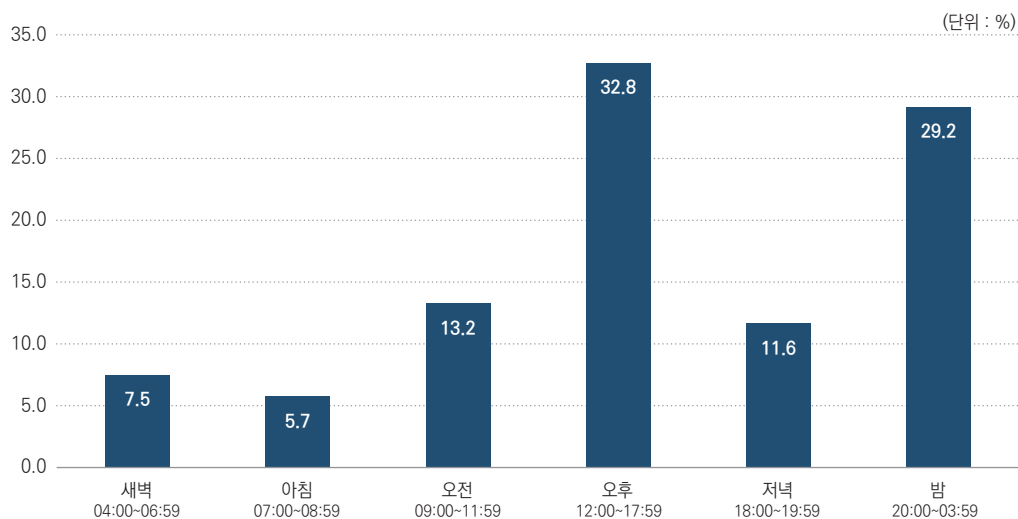


그림 54 철도범죄의 범죄발생시간

2) 범죄발생장소

- 철도범죄의 발생장소는 기타(25.3%)를 제외해보면, 노상이 22.6%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상점 19.0%, 주거지 13.0%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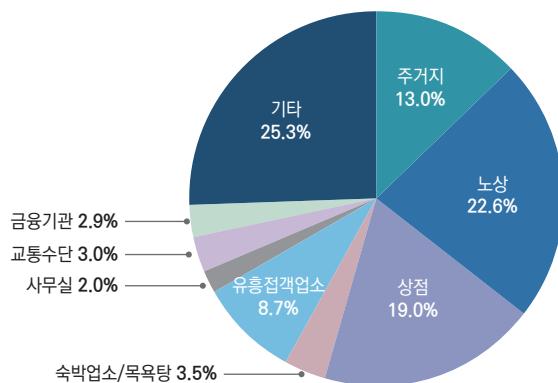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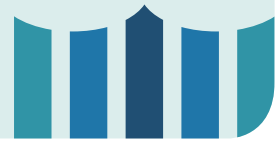


그림 55 철도범죄의 범죄발생장소



3) 범행수법

- 절도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73.3%)를 제외해보면, 침입절도가 14.3%로 가장 많았고, 치기절도²⁰ 11.5%, 속임수절도²¹ 0.9%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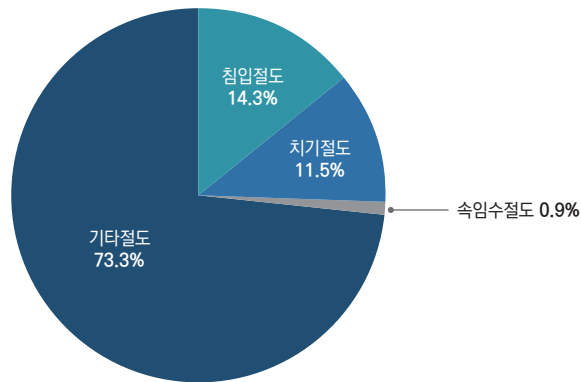


그림 56 절도범죄의 범행수법

4) 재산피해정도

- 절도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살펴보면,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4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28.0%, 100만원 초과가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절도범죄사건의 84.8%가 100만원 이하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 치기절도는 발생통계원표 상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의 범죄수법을 의미

21 속임수절도는 전화를 걸어 업주를 밖으로 유인하는 등 속임수를 이용한 절도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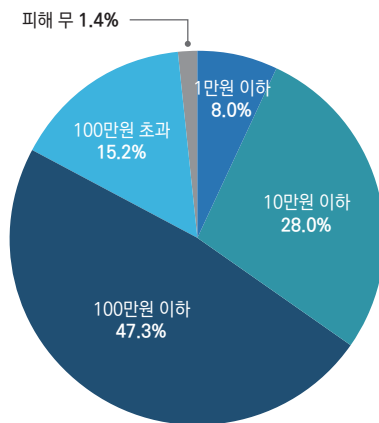


그림 57 절도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정도

5) 범죄자의 성(性)과 연령

- 절도범죄 범죄자의 75.3%가 남성이며, 24.7%가 여성이다.
- 절도범죄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19세~30세로 전체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61세 이상(17.9%), 51세~60세(17.5%) 등의 순이었다.
- 절도범죄 범죄자는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의 연령대에서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범죄자는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여성범죄자는 나이든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보였다.

표 34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범죄자 연령	범죄자 성		계
	남성	여성	
18세 이하	14,400(19.6)	2,504(10.4)	16,904(17.3)
19세-30세	15,293(20.8)	3,558(14.7)	18,851(19.3)
31세-40세	9,854(13.4)	2,947(12.2)	12,801(13.1)
41세-50세	10,612(14.4)	3,848(15.9)	14,460(14.8)
51세-60세	11,973(16.3)	5,160(21.4)	17,133(17.5)
61세 이상	11,359(15.5)	6,135(25.4)	17,494(17.9)
계	73,491(100.0)	24,152(100.0)	97,64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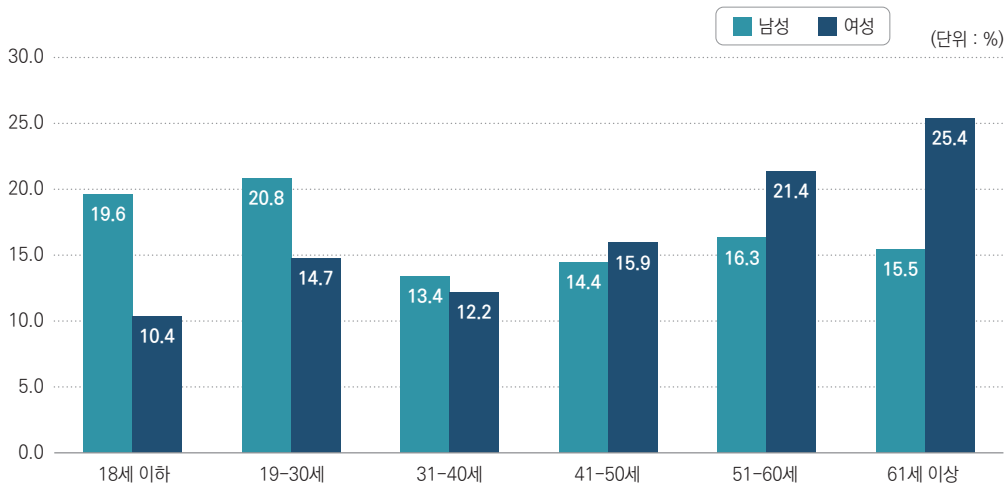


그림 58 절도범죄 범죄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6) 범죄자의 전과

- 절도범죄 범죄자의 61.8%는 전과가 있었다.
-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전과자 비율은 차이를 보여,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42.8%인 반면에, 성인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은 66.2%로 소년범죄자에 비해 더 높았다.

표 35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 여부별 분포

(단위 : 명(%))

전과 여부	소년범 여부		계
	소년범	성인범	
전과없음	9,430(57.2)	24,159(33.8)	33,589(38.2)
전과있음	7,046(42.8)	47,250(66.2)	54,296(61.8)
계	16,476(100.0)	71,409(100.0)	87,88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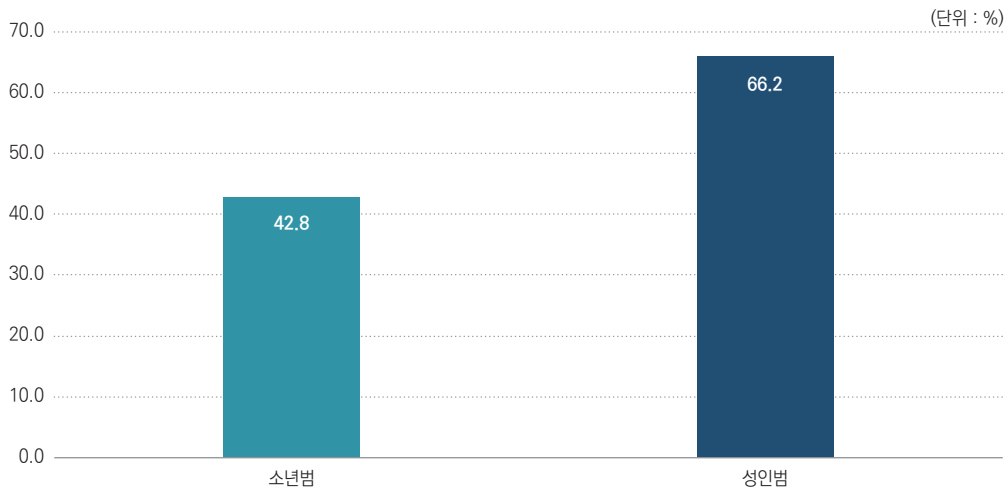


그림 59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전과자 비율

7) 범행동기

- 절도범죄 범죄자의 범행동기는 기타를 제외하고 보면, 우발적 범행이 37.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기타이욕(19.1%), 생활비 마련(10.3%) 등의 순이다.
- 소년범죄자는 성인범죄자에 비해 호기심/유혹(소년범 13.6%, 성인범 2.1%)에 의해서나 유흥/도박비(소년범 5.6%, 성인범 1.2%) 마련을 위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 소년범죄자의 범행동기 중 이욕에 해당되는 생활비(8.7%), 유흥/도박비(5.6%), 기타 이욕(18.4%)이 32.7%를 차지함에 따라, 우발적(29.9%) 범행과 함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 범행 원인임을 나타낸다.

표 36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

(단위 : 명(%))

범행동기	소년범 여부		계
	소년범	성인범	
생활비 마련	779(8.7)	7,498(10.5)	8,277(10.3)
유흥/도박비 마련	503(5.6)	842(1.2)	1,345(1.7)
기타이욕	1,650(18.4)	13,637(19.1)	15,287(19.1)
호기심/유흥	1,224(13.6)	1,468(2.1)	2,692(3.4)
우발적	2,687(29.9)	27,038(37.9)	29,725(37.0)
기타	2,130(23.7)	20,780(29.2)	22,910(28.6)
계	8,973(100.0)	71,263(100.0)	80,23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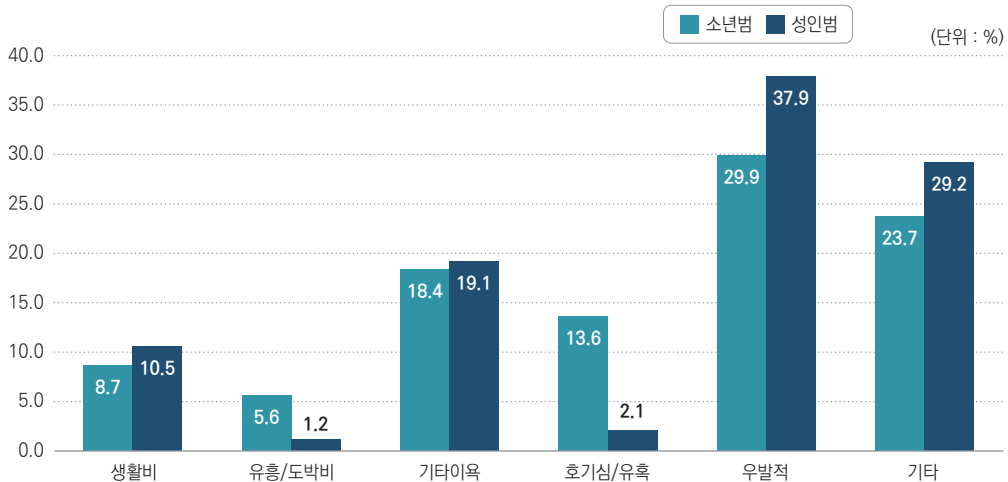


그림 60 절도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범행동기별 분포

7. 사기

1) 피해자의 성(性)과 연령

- 2018년 총 278,566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
- 사기범죄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65.1%, 여성이 34.9%였다.

-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1세~50세가 2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51세~60세(21.2%), 31세~40세(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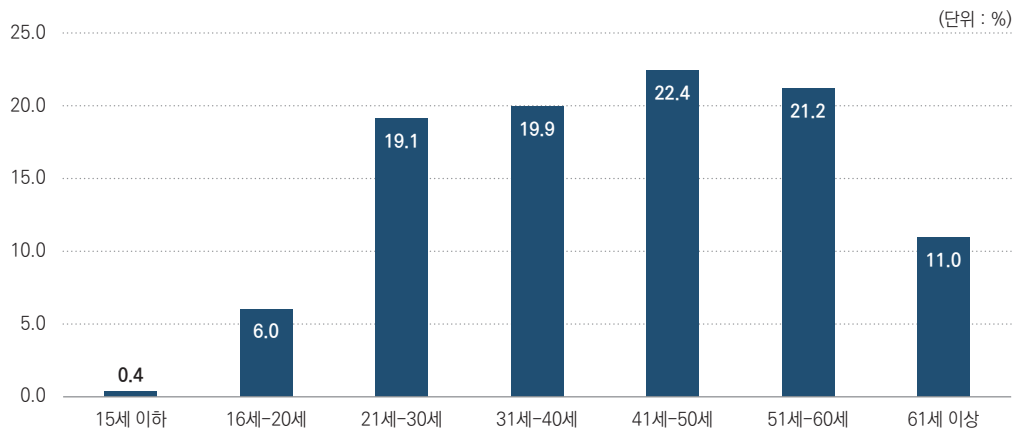


그림 61 사기범죄 피해자의 연령

2) 재산피해정도

- 사기범죄로 인한 재산피해액을 살펴보면,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2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로 26.9%를 차지하였으며,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비율은 21.8%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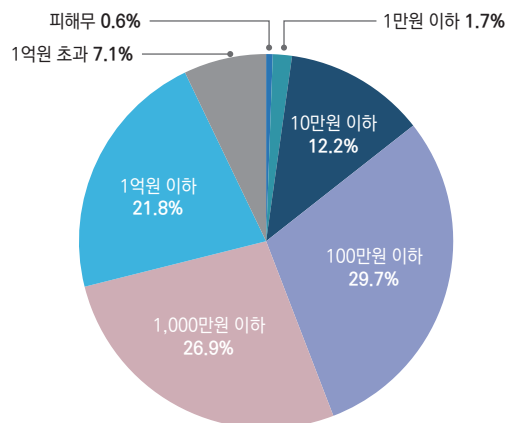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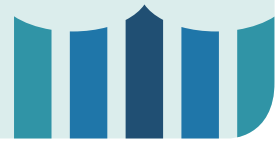


그림 62 사기범죄 피해자의 재산피해정도



3) 범행수법

- 사기범죄의 범행수법은 기타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매매가장(23.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가짜속임(19.5%), 차용사기(8.9%)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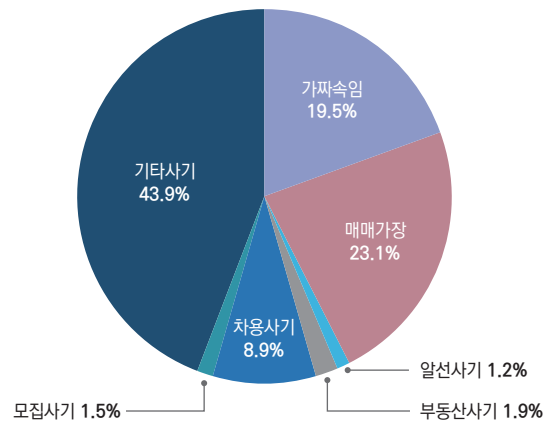


그림 63 사기범죄의 범행수법

4) 범죄자의 성(性)과 연령

- 검거된 사기범죄 범죄자의 76.9%는 남성이고, 23.1%는 여성이다.
- 검거된 사기범죄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1세~50세가 2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1세~60세(24.6%), 19세~30세(19.0%)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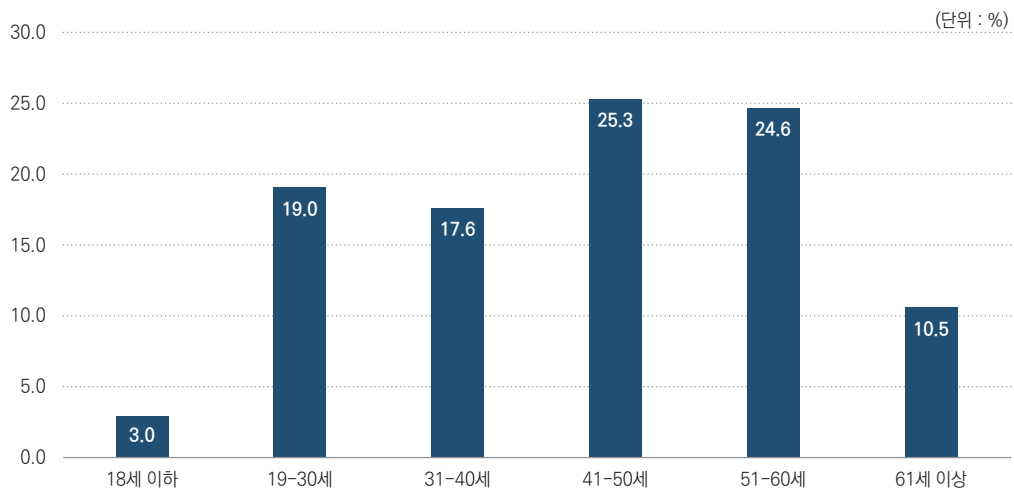


그림 64 사기범죄 범죄자의 연령

8. 교통범죄

1) 범죄발생건수

- 2018년 총 433,350건의 교통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교통사고 범죄는 223,608건으로 교통범죄의 51.6%에 해당되며, 교통사고 범죄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는 209,742건으로 48.4%에 해당된다.

2) 범죄발생시간

- 교통범죄가 가장 빈발하는 시간대는 밤(20:00~03:59)(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범죄는 오후(33.3%)와 밤(23.8%)에 많이 발생한 반면에, 교통사고 범죄를 제외한 기타 교통범죄는 55.5%가 밤에 발생하였다.

표 37 교통범죄 유형별 범죄발생시간별 분포

(단위 : 건(%))

범죄발생시간	교통범죄 유형		계
	교통사고 범죄	기타 교통범죄	
새벽 04:00~06:59	12,265(5.7)	15,345(8.5)	27,610(6.9)
아침 07:00~08:59	19,967(9.2)	9,248(5.1)	29,215(7.3)
오전 09:00~11:59	31,187(14.4)	16,333(9.0)	47,520(11.9)
오후 12:00~17:59	72,317(33.3)	29,434(16.2)	101,751(25.5)
저녁 18:00~19:59	29,696(13.7)	10,438(5.8)	40,134(10.1)
밤 20:00~03:59	51,585(23.8)	100,661(55.5)	152,246(38.2)
계	217,017(100.0)	181,459(100.0)	398,47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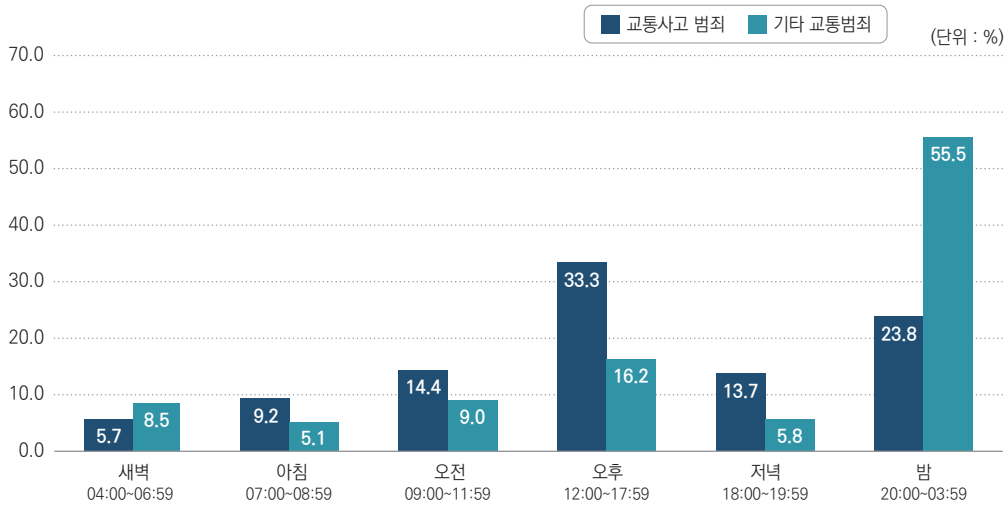


그림 65 교통범죄 유형별 범죄발생시간별 분포

3) 범죄발생지역

- 2018년 교통사고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5.9%)였고,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17.3%)였다. 반면에 울산광역시(1.3%)는 16개 시·도 중 교통사고 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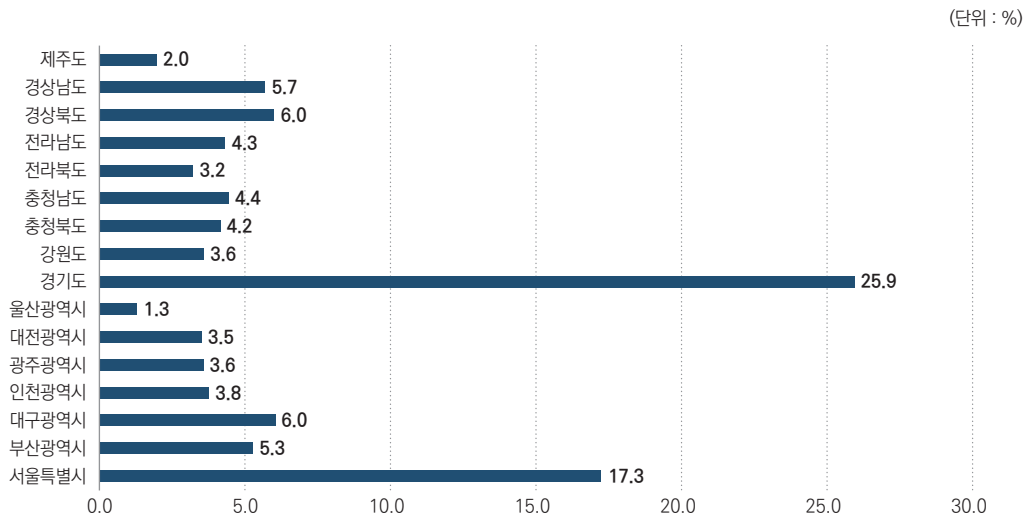


그림 66 지역별 교통사고 범죄 발생비율

- 교통사고를 제외한 기타 교통범죄의 경우에도 경기도(26.8%)의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13.2%)였다. 울산광역시(1.7%)는 교통사고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도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은 대전광역시(2.1%)와 제주도(2.3%), 강원도(3.1%)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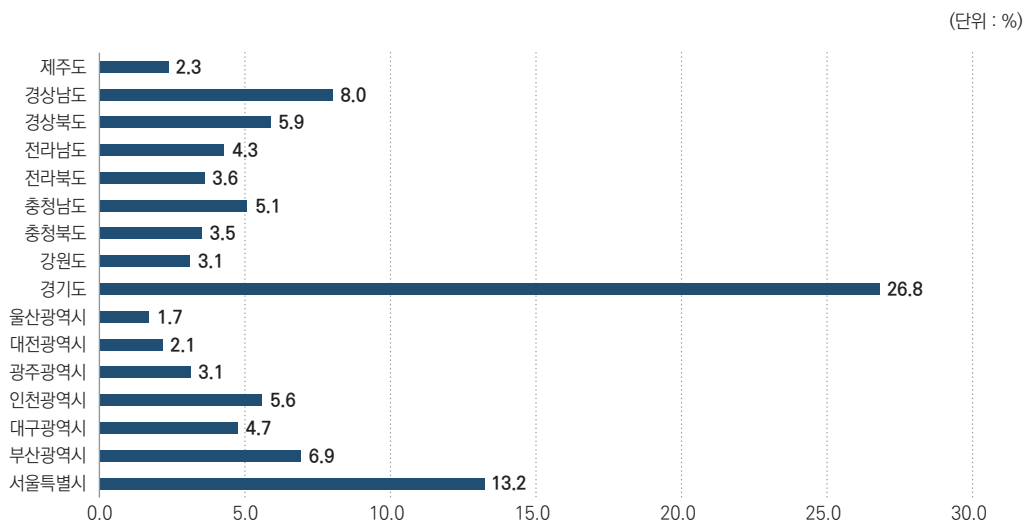


그림 67 지역별 기타 교통범죄 발생비율



4) 범죄자의 성(性)과 연령

- 교통범죄 범죄자의 83.9%는 남성이었으며, 16.1%는 여성이었다. 남성범죄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범죄(78.4%)보다 기타 교통범죄(89.7%)의 비율이 여성범죄자보다 높은 반면, 여성범죄자는 교통사고 범죄(21.6%)가 기타 교통범죄(10.3%)의 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38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성별 분포

(단위 : 명(%))

범죄자 성	교통범죄 유형		계
	교통사고 범죄	기타 교통범죄	
남성	176,000(78.4)	190,373(89.7)	366,373(83.9)
여성	48,619(21.6)	21,907(10.3)	70,526(16.1)
계	224,619(100.0)	212,280(100.0)	436,89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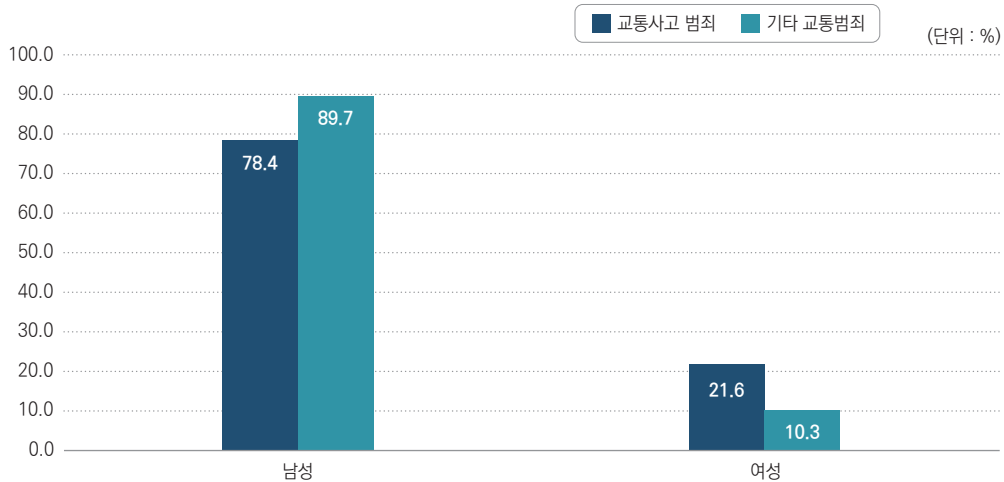


그림 68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성별 발생비율

5) 범죄자의 연령

- 교통범죄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41세~50세로 전체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51세~60세의 연령대는 22.9%, 31세~40세는 20.5%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범죄 유형별로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세 이하는 교통사고 범죄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높고, 51세 이상은 교통사고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범죄자 연령	교통범죄 유형		계
	교통사고 범죄	기타 교통범죄	
18세 이하	2,967(1.3)	4,674(2.2)	7,641(1.8)
19세~30세	32,701(14.6)	41,465(19.6)	74,166(17.0)
31세~40세	36,787(16.4)	52,770(24.9)	89,557(20.5)
41세~50세	46,761(20.8)	54,278(25.6)	101,039(23.2)
51세~60세	58,007(25.8)	41,840(19.8)	99,847(22.9)
61세 이상	47,275(21.1)	16,812(7.9)	64,087(14.7)
계	224,498(100.0)	211,839(100.0)	436,33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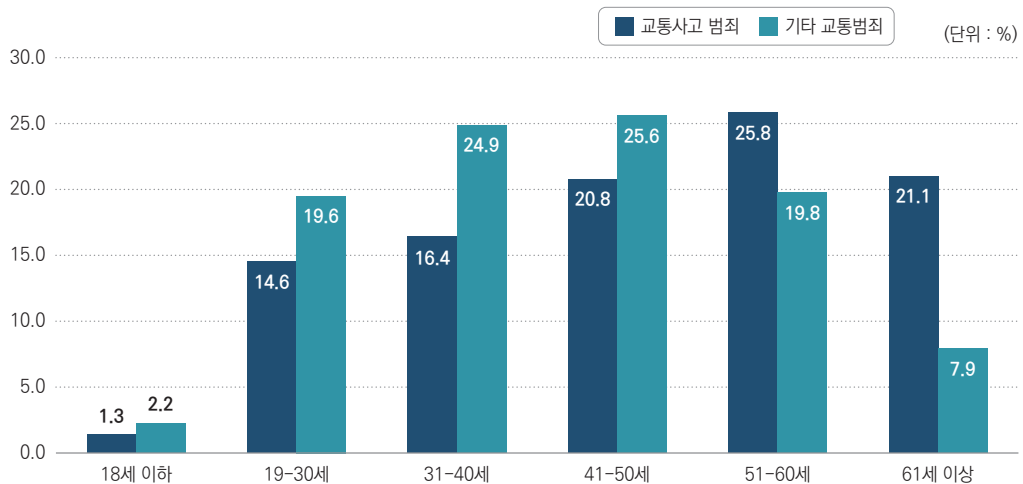


그림 69 교통범죄 범죄자의 유형별 연령별 분포

9. 13세 미만 아동대상 범죄

가. 아동유괴²²

1) 피해자의 성(性)과 연령

- 2018년 총 199건의 약취유인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52.3%에 해당하는 104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였다.
- 아동유괴 피해자의 38.8%가 남성아동이고, 61.2%가 여성아동으로 여성아동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2) 범죄발생시간

- 아동유괴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12:00~17:59)로 전체범죄의 64.0%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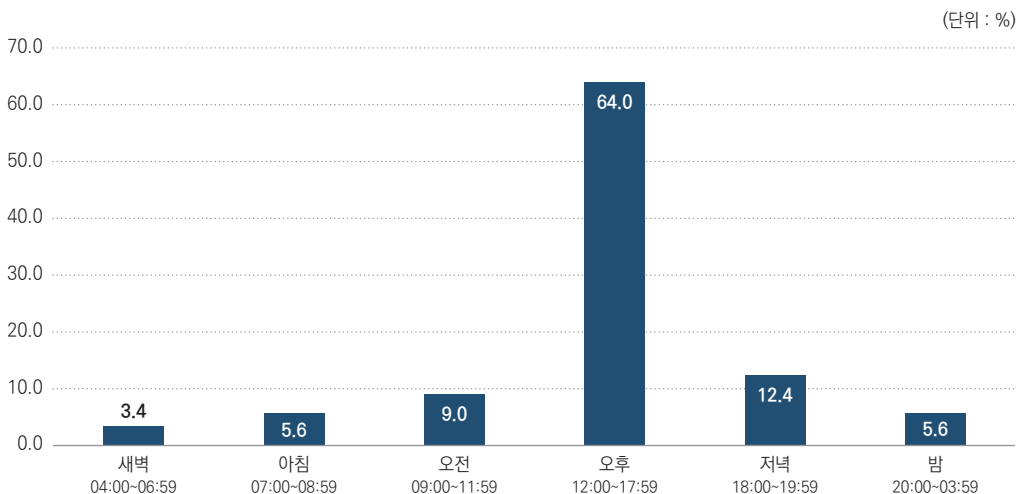


그림 70 아동유괴범죄의 범죄발생시간

23 아동유괴란 「형법」의 약취유인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범죄를 의미

3) 범죄발생장소

- 아동유괴범죄의 44.2%(46건)가 노상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외 기타장소(35건, 33.7%) 주거지(23건, 22.1%)에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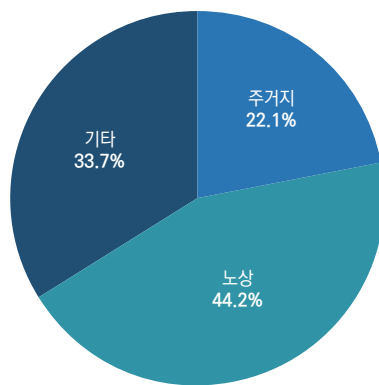


그림 71 아동유괴범죄의 범죄발생장소

4) 범죄자의 성(性)과 연령

-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62.5%(55명)가 남성이며, 37.5%(33명)가 여성이었다.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아동유괴범죄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은 31세~40세(34.1%)이며, 그 다음은 51세~60세(20.5%), 41세~50세(17.0%)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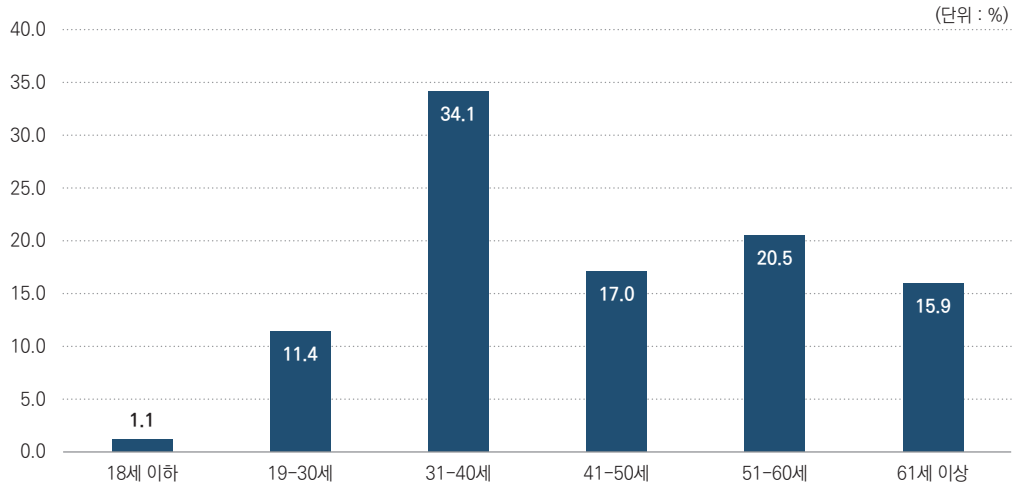


그림 72 아동유괴범죄자의 연령

5) 범죄자의 전과와 재범유형

-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50.0%가 검거되기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었다. 그리고 아동유괴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동종재범자는 1.7%(1명)로 나타났다.

6) 공범 여부

-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89.5%(51명)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중 5.3%(3명)가 친인척이었다.

7)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인 경우(72.4%)가 지인관계인 경우(25.9%)보다 많았다. 지인관계인 경우에는 대부분 친족관계(19.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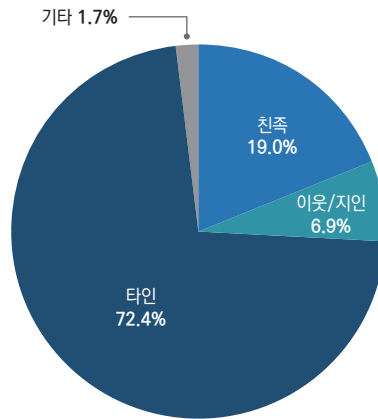


그림 73 아동유괴범죄 범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나. 아동성폭력

1) 발생건수

- 2018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83건이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 이후 대체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27.4% 증가하였다.
- 13세~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추이를 보이다 2014년 이후에는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13세~2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40.5% 증가하였다.
- 지난 10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모두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13세~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발생건수 추이(2009년~2018년)

(단위 : 건, %)

연도	발생건수			증감률	
	13세 미만	13세-20세	계	13세 미만	13세-20세
2009	1,007	5,200	6,207		
2010	1,180	6,218	7,398	17.2	19.6
2011	1,057	6,883	7,940	5.0	32.4
2012	1,127	7,834	8,961	11.9	50.7
2013	1,172	8,719	9,891	16.4	67.7
2014	1,208	8,322	9,530	20.0	60.0
2015	1,272	7,753	9,025	26.3	49.1
2016	1,231	7,342	8,573	22.2	41.2
2017	1,270	8,079	9,349	26.1	55.4
2018	1,283	7,308	8,591	27.4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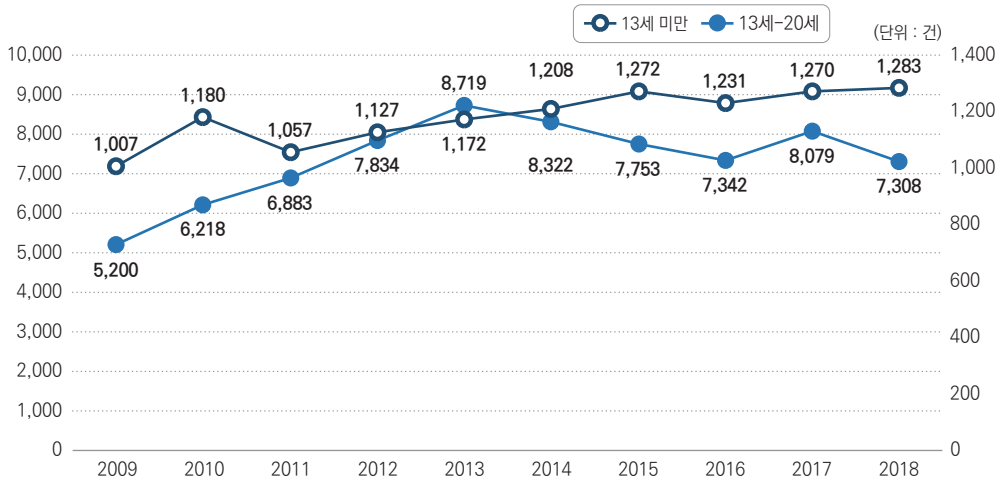


그림 74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발생건수 추이(2009년~2018년)

2) 성폭력범죄 유형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7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강간/간음으로 16.5%를 차지하였다. 13세~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강제추행(49.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비율이 낮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15.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전체적으로 아동과 13~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는 강제추행이 5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강간/간음(21.6%), 카메라등이용촬영(13.6%) 등의 순이다.

표 4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유형별 분포

(단위 : 건(%))

성폭력 유형	피해자 연령		계
	13세 미만	13세~20세	
강간/간음	212(16.5)	1,640(22.4)	1,852(21.6)
강제추행	940(73.3)	3,612(49.4)	4,552(53.0)
강간 등	29(2.3)	97(1.3)	126(1.5)
강간등살인/치사/상해/치상	3(0.2)	106(1.5)	109(1.3)
특수강도강간등	0(0.0)	4(0.1)	4(0.0)
카메라등이용촬영	21(1.6)	1,149(15.7)	1,170(13.6)
성적목적의장소침입	3(0.2)	84(1.1)	87(1.0)
통신매체이용음란	73(5.7)	332(4.5)	405(4.7)
공중밀집장소추행	2(0.2)	284(3.9)	286(3.3)
계	1,283(100.0)	7,308(100.0)	8,591(100.0)

3) 피해자의 성(性)과 연령

- 13세 미만 아동피해자의 86.5%가 여성아동이다. 아동피해자 중 13.5%가 남성아동이었는데, 이는 13세~20세 연령층 피해자의 경우 남성피해자가 6.4%라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표 4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 건(%))

피해자 성	피해자 연령		계
	13세 미만	13세~20세	
남성	172(13.5)	465(6.4)	637(7.4)
여성	1,106(86.5)	6,808(93.6)	7,914(92.6)
계	1,278(100.0)	7,273(100.0)	8,55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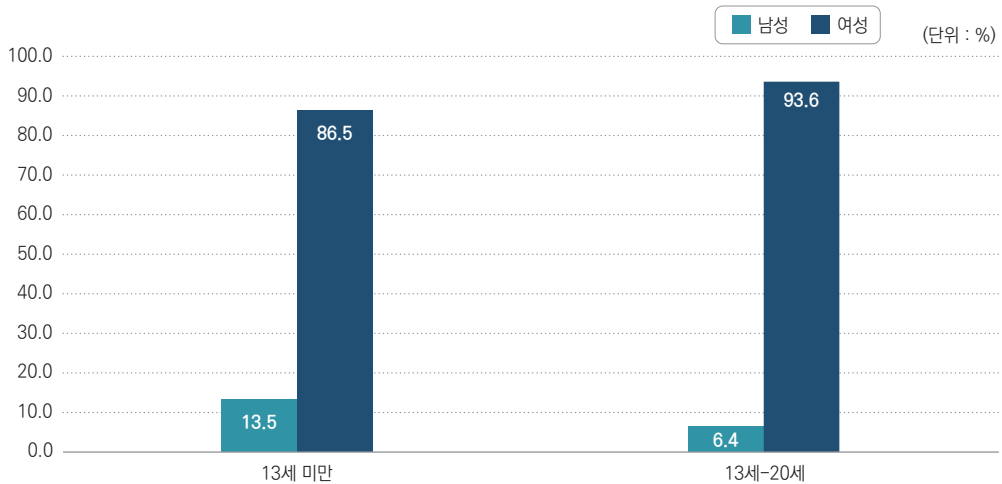


그림 75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비율

4) 범죄발생시간

-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12:00~17:59, 5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세~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밤(20:00~03:59, 41.0%)에 가장 많이 발생하다는 점과 대비된다.

표 4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시간별 분포

(단위 : 건(%))

범죄발생시간	피해자 연령		계
	13세 미만	13세~20세	
새벽 04:00~06:59	18(1.9)	613(10.5)	631(9.3)
아침 07:00~08:59	30(3.2)	392(6.7)	422(6.2)
오전 09:00~11:59	82(8.8)	485(8.3)	567(8.4)
오후 12:00~17:59	515(55.4)	1,344(23.0)	1,859(27.4)
저녁 18:00~19:59	132(14.2)	621(10.6)	753(11.1)
밤 20:00~03:59	152(16.4)	2,400(41.0)	2,552(37.6)
계	929(100.0)	5,855(100.0)	6,78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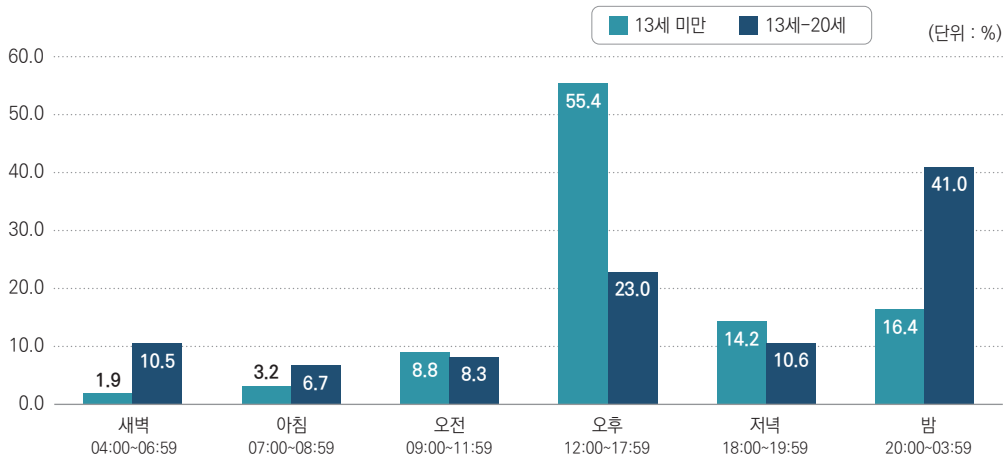


그림 76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시간별 비율

5) 범죄발생장소

- 범죄발생장소 중 기타를 제외하고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거지(40.2%)이며, 그 다음은 노상(15.1%) 등의 순이었다. 13세~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거지(25.1%)이며, 그 다음은 숙박/유흥업소(19.6%), 노상(13.7%) 등의 순이었다.

-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가 13세~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4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장소별 분포

(단위 : 건(%))

범죄발생장소	피해자 연령		계
	13세 미만	13세~20세	
주거지	516(40.2)	1,836(25.1)	2,352(27.4)
노상	194(15.1)	1,001(13.7)	1,195(13.9)
상점/시장	62(4.8)	316(4.3)	378(4.4)
숙박/유흥업소	74(5.8)	1,433(19.6)	1,507(17.5)
교통수단	38(3.0)	770(10.5)	808(9.4)
학교	53(4.1)	365(5.0)	418(4.9)
기타	346(27.0)	1,587(21.7)	1,933(22.5)
계	1,283(100.0)	7,308(100.0)	8,59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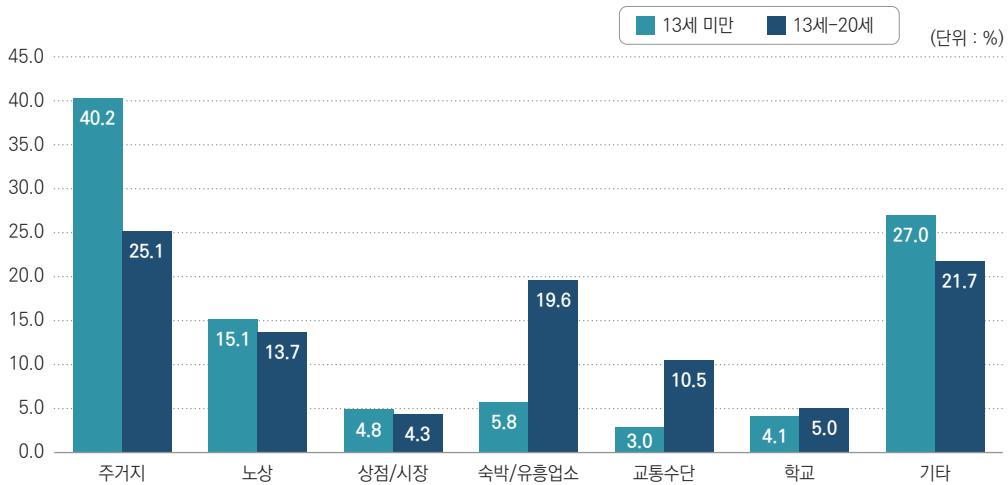


그림 7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발생장소별 비율

6) 범죄자의 성(性)과 연령

-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97.8%는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하였다.
-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41세~50세로 19.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18세 이하(18.6%), 19세~30세(17.4%) 등의 순이었다.
-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는 13세~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에 비해 41세 이상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범죄자 연령	피해자 연령		계
	13세 미만	13세~20세	
18세 이하	207(18.6)	1,560(23.9)	1,767(23.1)
19세~30세	194(17.4)	2,365(36.2)	2,559(33.4)
31세~40세	130(11.7)	908(13.9)	1,038(13.6)
41세~50세	217(19.5)	805(12.3)	1,022(13.4)
51세~60세	178(16.0)	569(8.7)	747(9.8)
61세 이상	187(16.8)	333(5.1)	520(6.8)
계	1,113(100.0)	6,540(100.0)	7,65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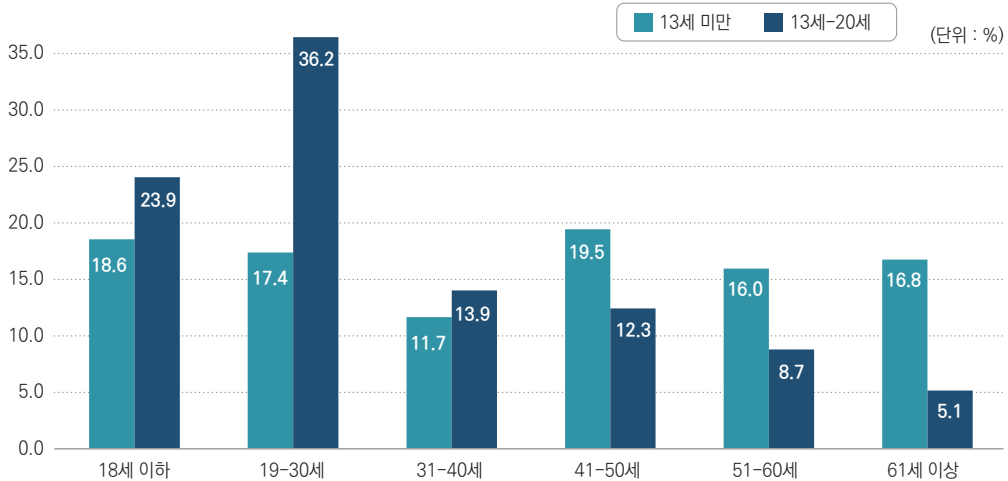


그림 78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연령별 비율

7) 범죄자의 전과 및 동종재범

-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52.4%가 1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범자 중 18.6%가 이전에 성폭력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동종재범자로 나타났다.
-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는 13세~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보다 전과 비율(13세 미만 52.4% / 13~20세 45.9%)이 높았으며, 동종재범 비율(13세 미만 18.6% / 13세~20세 20.0%)은 13세~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가 높게 나타났다.

8) 범행당시 범죄자의 정신상태

-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의 77.1%가 정상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5.3%이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7.5%이다. 13세~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에 비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낮은 반면에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의 비율은 더 높았다.

표 46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별 분포

(단위 : 명(%))

범행시 정신상태	피해자 연령		계
	13세 미만	13세~20세	
정상	746(77.1)	3,611(66.8)	4,357(68.4)
정신장애	73(7.5)	138(2.6)	211(3.3)
주취	148(15.3)	1,655(30.6)	1,803(28.3)
계	967(100.0)	5,404(100.0)	6,37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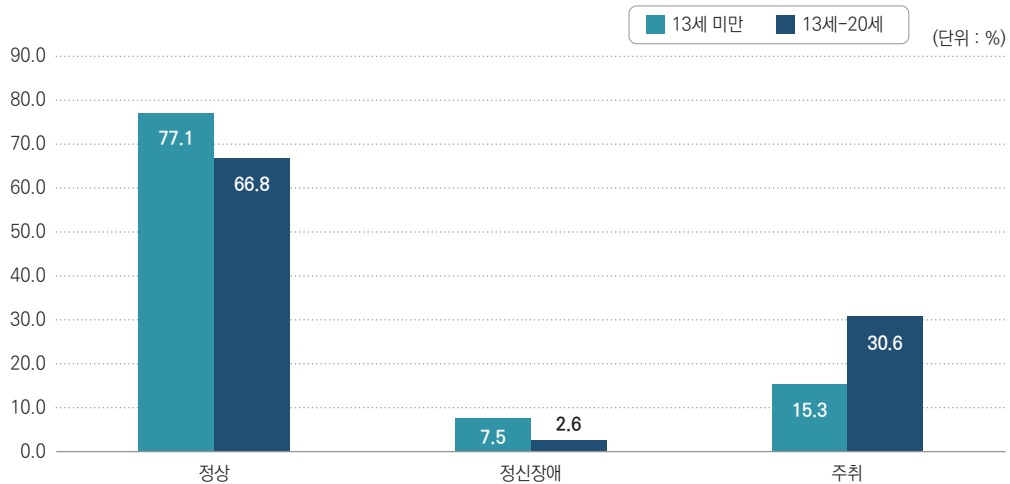


그림 79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별 비율

9) 공범 여부

-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97.5%가 단독범이었다. 13세~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자도 95.0%가 단독범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연령에 따른 공범여부는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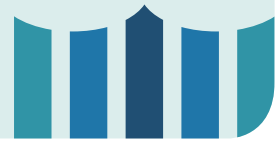


표 4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공범 여부별 분포

(단위 : 명(%))

공범 여부	피해자 연령		계
	13세 미만	13세~20세	
단독범	943(97.5)	5,129(95.0)	6,072(95.4)
공범	24(2.5)	270(5.0)	294(4.6)
계	967(100.0)	5,399(100.0)	6,366(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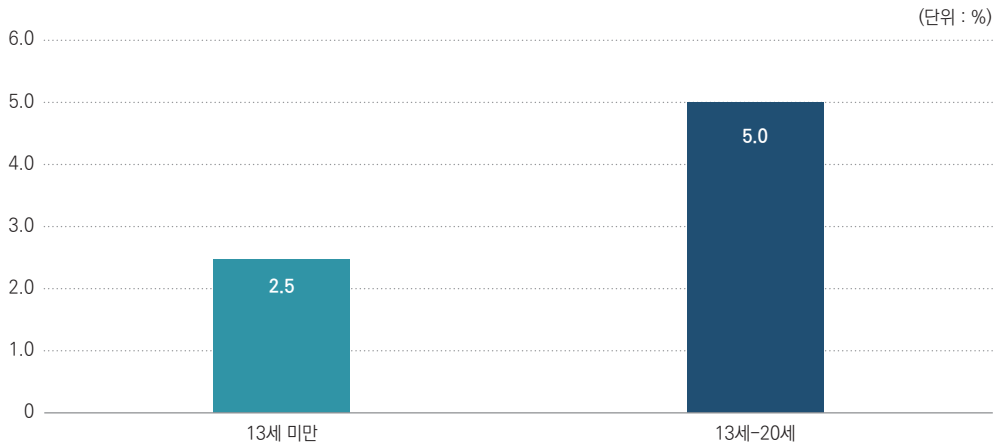


그림 80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 공범비율

10)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54.9%가 타인이었다. 그 다음으로 이웃/지인(18.2%), 친족(17.2%) 등의 순이었다.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범죄는 13세~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이웃/지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48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분포

(단위 : 명(%))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연령		계
	13세 미만	13세-20세	
친구/직장동료	6(0.6)	539(10.5)	545(8.9)
애인	3(0.3)	176(3.4)	179(2.9)
친족	163(17.2)	245(4.8)	408(6.7)
이웃/지인	173(18.2)	697(13.6)	870(14.3)
타인	522(54.9)	3,125(60.8)	3,647(59.9)
기타	83(8.7)	361(7.0)	444(7.3)
계	950(100.0)	5,143(100.0)	6,09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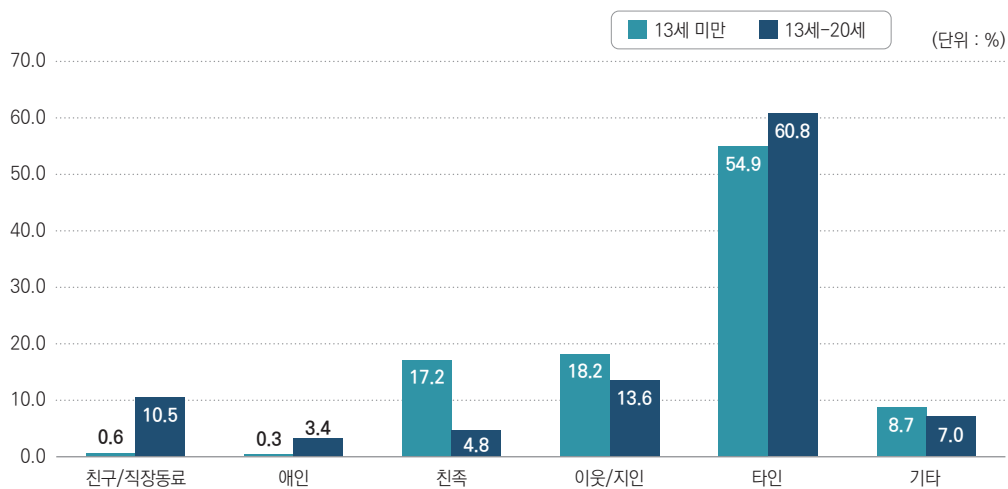


그림 8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별 비율